전법 일기

병원에서 배운 부모님의 사랑

불교에서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며 죽는 일을 인생의 네 가지 괴로움, 즉 '사고(四苦)'라고 표현한다. 이 네 가지 고통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이 중 병(病)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처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아무리 큰 권력과 재산, 명예를 지녔다 해도 병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병은 아픈 사람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그리고 주위에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과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연화원은 20여 년 전부터 불교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을 목적으로 호스피스와 간병인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서울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고 서울시 북부병원에 불교 법당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나는 북부병원 법당에서 환자들과 함께 법회를 하며 '어머니의 마음' 노래를 먼저 부른 후에 사홍서원과 산회가를 합송한다. 이 시간은 환자뿐 아니라 간병인과 봉사자들에게도, 부모님 은혜를 되새기는 소중한 순간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이나 상황을 초월해 언제나 지극하며 그 은혜는 몸을 바쳐도 다 갚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이다. 나는 병실을 방문해 쾌유 기도를 드리면서, 그 같은 부모님의 자식 사랑을 새삼 깨닫게 됐다. 심한 노환으로 휠체어에 의지해 힘들게 생활하는 어르신들과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분들도 자신의 쾌유보다는 오로지 자식의 건강과 사업성취를 발원하시는 모습을 종종 마주했기 때문이다. "내 한 몸 부서져 저승에 가더라도 자식만큼은 행복하게 살게 해 달라"며, 움직이기 힘든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부탁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태산 같은 부모님의 사랑에 감동했다.

우리는 부처님오신날에는 절에 갈 수 없는 환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병원 로비에 봉축 관불단을 일주일 동안 설치해 왔다. 환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부처님께 참배하고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며 마음의 평온을 느낀다며 감사해했다. 이들에게는 부처님오신날의 봉축은 물론, 신앙의 기억을 되살리고 불심을 회상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회가 됐다. 관불단을 꽃으로 장엄할 때도 환자들은 오랫동안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곁을 떠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트리가 세워진 것처럼, 부처님오신날의 관불단은 환자들에게 특별한 위로가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지금 건강하다고 병들고 아플 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참뜻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셨다. 〈선생경〉에서는 "병자를 간호할 때 은혜를 내세우지 말고, 회복하면 기뻐하되 과보를 바라지 말며 불행히 세상을 떠나면 친지와 가족을 위로하라"는 가르침이 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날마다 보은하는 마음으로 나의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 곁의 어르신들도 내 부모님처럼 모시는 따뜻한 불자의 마음이 세상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해성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㉒ 공존이라는 감각 ②

공동체 위해 '공정'에서 '공존'으로

지난해 대학을 다니다 그만둔 학생이 1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는 4년제 대학 신입생의 3분의 1로, 학생들이 더 상위권의 대학으로 옮겨 갔기 때문이다. 심지어 서울대생들도 열등감에 차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의대에 못 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것은 지방의대 학생들은 수도권 의대에 가지 못한 열등감에, 인기과 레지던트에 합격하지 못한 의사들은 인기과에 못 간 열등감에, 이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강남에서 개원의가 되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진다고 한다. 이처럼 능력주의는 사람들을 끝없는 비교 지옥에 빠뜨리며 열등감과 패배주의로 몰아넣는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권력, 재화의 획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념이자 시스템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이 경쟁은 가장 '공정'한 것이 돼야 한다. 그리고 겉으로 선명하게 드러난 이 공정을 최고선으로 삼기에 우리는 공정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능력주의를 내면화한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자기보다 덜 노력한 사람으로 여긴다. 한편으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며 열패감에 빠진다.

이때 공정이라는 근사한 방패는 자기 열등감을 숨기는 데 안성맞춤이다. 그렇게 안전한 방패 뒤에 숨어 어떤 기준에 못 미친 사람들에게 '맘충', '기레기', '지잡대' 등 조롱과 혐오의 말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낸다. 능력주의는 또 불평등이라는 누적된 사회 모순을 개인의 노력 부족 탓으로 여기므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박적으로 자기 계발에 매달리며 스스로를 소진하게 한다. 모두가 번아웃에 빠진 이유다.

성과 최우선 하는 경쟁 능력주의
시스템 효율 위해 인간성 유보
사회 신뢰 위해 공존 목적 필요

경쟁은 동일한 조건에서 누가 더 자격이 있나 능력만을 따지기에 그 결과에 대해 납득할 만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다. 따라서 경쟁을 통해 뽑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다. 뭐든 경쟁을 붙이면 최소 비용으로 가장 생산성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고, 또 경쟁해야만 개인이 더 열심히 준비하고 성장할 동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는 이 능력주의는 인간을 시스템의 한 부품으로 여기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인간성을 유보하도록 한다. 효율성과 이윤 극대화가 우선이기에, 제품을 보다 '더 싸고, 더 많이, 더 빠르게' 생산하는 것이 선의 가치에 서고, 그 과정에서 부품 취급받는 인간은 인간다운 가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효율성과 이윤 극대화를 저해하는 일이 된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인가?'란 질문이 내재화된 사회는 목적지도 없이 그저 빠른 속도로만 경쟁하는 살벌한 고속도로와 같다.

앞으로 우리는 공정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공존으로 바꿔 읽으며 하나의 감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공정'을 목적으로 할 때 부당하다고 느꼈던 일들이 '공존'을 목적으로 할 때는 공기처럼 이 사회의 신뢰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세금을 내는 일도, 약자를 위해 의자를 내어 주는 일도, 내 일을 제쳐 두고 물에 빠진 사람을 돕는 일도' 이런저런 공정성을 따지기 전에 공존을 위해 꼭 필요한 공동체의 약속이자 의무임을 깨달을 수 있다. 이때 능력주의는 필요악이 아닌, 세상에 '기여함'을 따지는 다른 차원의 능력주의가 되고, 남을 이기는 경쟁은 자기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미로 그 차원을 달리할 것이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자제공덕회의 성공비결은?

최근 현대불교신문 '대만불교 교육연수' 중 자제공덕회 신디엔 자제정사당 기념관을 찾았을 때 일이다. 24년 동안 자제공덕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류쥔안 슈퍼바이저를 만나 그의 불교 인연과 활동 계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란 그는 종교에 무심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을 만나면서 삶이 바뀌게 됐다. 그 스님은 무너져 가는 성당을 다시 지어 주고, 자연재해로 파손된 이슬람 사원도 복구하며 종교의 경계를 넘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움직이던 수행자였다.

그는 몸소 자비를 실천하는 스님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불교에 귀의했다. '세상은 다 함께 살아간다'는 확신이 생긴 것도 그때였다. 이후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일상에서 남을 배려하며 모범이 되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24년 동안 그는 이웃의 행복을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변화된 생활 지켜보던 가족들도 불자는 아니지만, 점차 그를 지지하고 응원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지금의 자제공덕회를 만들었다. 대만에서는 자제공덕회 유니폼을 입은 이들만 봐도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한다. 거창한 홍보보다 먼저 움직이는 한 사람의 마음이 만든 결과다.

자제공덕회는 1966년, 돈이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웃을 보고 증엄 스님이 설립했다. 당시 30여 명의 주부가 반찬값을 아껴 하루 5전씩 모아 활동기금을 마련했는데, 그 작은 실천이 전세계 68개국에 지부를 두고 회원 1500여 만명이 활동하는 지금의 성장을 이끌었다.

한국불교에서도 신도 수 확대와 포교 방안은 늘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때로는 거대한 계획보다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실천이 더 강한 파급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불교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한 사람'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